

## ◆ (정책동향) ① 불법사금융 근절 동향

- ▶ 사기적인 영업수법과 악질적인 불법추심 등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 발생
- ▶ 정부는 3.6일 민생범죄점검회의에서 ‘불법사금융 근절과제 추진상황’을 발표, 피해 근절을 위해 피해 예방부터 단속·처벌까지 쉼단계에서 강력한 대응을 추진할 계획

## ◆ (지역동향) ② (전 국) 사교육비 경감 노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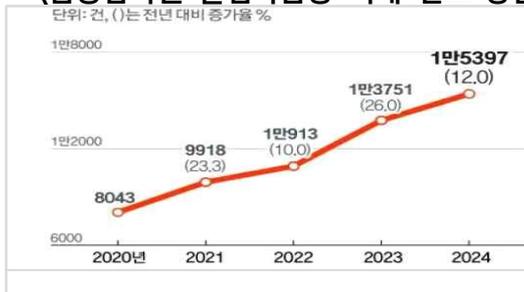
### ③ (광 주) 영산강 개발사업 추진 관련 동향

## 1 불법사금융 근절 동향

### □ 사기적 영업수법을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는 지속 발생

- 지난 '24.9월 유치원 딸을 둔 30대 싱글맘이 연 3,000%의 고리 불법 추심에 고통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
  - 사채업자들은 수천%에 달하는 이자를 갚지 못하자 가족과 지인,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협박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
- 최근, 불법 온라인광고 등 사기적인 영업수법과 협박 등 악질적인 불법추심 등으로 인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가운데,
  - 저신용 서민층들은 제도권 민간금융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아\* 불법사금융 이용이 지속\*\*되는 상황
  - \* '24.4분기 32개 저축은행 중 신용점수 400점 이하 차주에게 내준 신용대출은 단 7건
  - \*\* 불법사금융 이용자수(만명, 추정치) : <sup>(20)</sup>70.8 → <sup>(21)</sup>76.1 → <sup>(22)</sup>82.3 → <sup>(23)</sup>81.6
- 전문가들은 '21년 대부업 최고금리가 20%로 낮아지면서 제도권 대부업체 대출은 줄고, 불법사금융이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설명
  - 제도권 대부업체가 업권별로 금리를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불법사금융 유인을 낮출 수 있도록 피해예방 강화와 함께, 생활여건이 어려운 서민 대상 금융대출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

〈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·상담〉



〈대부업체 대출〉



출처 : 중앙일보, 금융감독원

## □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을 위한 대응 추진

- 정부(금융위)는 3.6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민생범죄점검회의에서 '불법사금융 근절과제 추진상황'을 논의
  - 먼저, 불법사금융의 주된 유입경로인 불법 온라인광고를 차단하는 한편, 정책서민금융을 확대\*하여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을 감소시키고,  
\* 정책서민금융 공급(조원) : <sup>(22)</sup> 9.7 → <sup>(23)</sup> 10.6 → <sup>(24)</sup> 9.3 → <sup>(25)</sup> 10.8
  - 수사당국-금감원-자치단체 수사 연계를 통해 범죄세력을 신속히 검거, 가해자들을 법정 구형기준 상향 등 처벌 강화를 통해 근절하고, 피해자들의 신변 보호, 피해 구제\* 등 안전을 강화할 계획  
\* 무효화소송 지원, 심리상담, 反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·이자 무효화 등

## □ 자치단체는 불법사금융 예방 및 불법 대부행위 단속을 위해 노력

-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('15년~)을 통한 불법대부업 수사·단속\* 및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('16년~)에서 불법추심 피해구제 상담을 제공, '24.9월에는 성매매종사자 불법대부 피해현황을 조사, 2월에는 전통 시장 주변 불법 대부업 단속 및 피해신고 안내문(2만장) 등을 배부  
\* ('24.9월) 대부업체 313개소 점검 및 위법업체 148곳 적발, 309건 제재조치 집행
- 인천시는 '24.6월 신용등급 6등급 이하·기초수급자 등 불법사금융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(최대 2,000만원)을 제공
- 대전시는 '15.6월 금감원·서민금융진흥원과 협업하여 전국 최초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개소,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를 지원하고 있으며, '21년부터는 개인파산·면책 신청도 추가로 지원
- 울산시는 '20년 市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에 대부업 분야를 추가, 상시 단속 및 피해 상담 지원 중으로, 올해 1월 대부업체(169개소) 대상으로 불법 대부행위를 점검, 법정금리 초과 대부업체, 무등록 사채업자를 적발
- 경기도는 '24.12월 '대부업 불법행위 척결'을 선포, 道 불법사금융 전담 단속팀 증설(1팀→2팀), 미등록 대부행위 및 광고, 법정금리 초과 대부 등에 대해 수사 단속 중이며('23~24년 25명 검거), '21년부터는 道 복지재단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상시 운영
- 전북도는 '24.10월 관내 14개 시·군과 합동으로 대부업체(148개소) 단속 및 도민 대상으로 불법대부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
- 제주도는 올해 제주시 대부업체(110개) 대상으로 대부계약·조건 적정성, 이자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

## 2 전 국(사교육비 경감 노력)

- 최근 정부(교육부·통계청)의 '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'에 따르면,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인 29조원을 기록한 가운데, 자치단체는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에 노력
- 서울 동작구는 지난해 동작입시지원센터를 개관해 1만명이 넘는 학생에게 입시지원 서비스를 제공, 올해는 △연 900회의 일대일 맞춤형 입시상담, △입시 멘토링('동작 S-클래스') 확대 등을 실시
  - 서울 도봉구는 지역 내 초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를 개설, 100명을 모집해 주요 5과목 동영상 강의를 무제한으로 제공
- 경기 포천시는 EBS와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5월부터 'EBS AI 공공학습센터'를 운영, 최대 6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7개 센터에서 수준별 학습 서비스와 온라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
- 강원 화천군은 자치단체 주도 온종일 돌봄·초중고 학습 공간인 '화천커뮤니티센터'를 운영, 원어민 교사의 영어 수업의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, 학부모의 67%가 사교육비 부담이 완화됐다고 응답
- 전남 완도군은 지역 내 학생들이 유명 강사들의 강좌를 제공해 인기가 높은 '서울 강남구 인터넷 강의'를 무제한 수강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중·고교생 300명에게 수강료(자부담 1만원)를 지원

## 3 광 주(영산강 개발사업 추진 관련 동향)

- 광주시는 도시이용인구 3천만명 실현을 목표로, 영산강 유역에 친수 공간을 조성해 여가와 레저 공간을 제공하는 'Y 프로젝트'를 추진
  - 핵심 사업으로 북구 영산강변 일대 7만 9천㎡ 부지에 물과 디지털 예술을 소재로 한 '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'과 물놀이 시설 '영산강 익사이팅존'을 조성해 '27년 개장할 계획
  - 市는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 작품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국제 설계공모를 실시, 최근 심사를 완료하고 당선작을 선정
- 그러나, 당선작이 공개된 이후 공모에 참여했던 업체들은 당선작이 공모상 주차장 설치 관련 지침을 위반했다고 반발
  - 후순위 업체들은 지침에 맞춰 건축 영역 안에 주차장을 배치한 설계작을 제출했으나, 선정 업체는 '하천법'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 없이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하천 구역에 주차장을 배치한 설계작을 제출해, 법령 위반으로 실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
  - 이에 대해, 市는 심사위원회 검토 결과 지침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
- 2순위로 탈락한 업체는 최근 법원에 계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,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

## 참 고

## 시·도지사 주요 일정(3.18)

시·도	시 간	내 용
서 울	-	· 청내근무
부 산	11:00 19:00	· 우리동네 ESG센터 사업 추진 업무협약 · 제18기 부산일보 CEO아카데미 입학식
대 구	10:00 11:00	· 市의회 제315회 임시회 ·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
인 천	-	· 청내근무
광 주	11:30	·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유가족 면담
대 전	14:00 17:00	· 대전 스타트업 파크 개소식 · 대전축구협회장 이취임식
울 산	-	· 공무국외출장(우즈베키스탄)
세 종	10:00 11:00	· 제19기 주민생계조합 대의원총회 및 주주총회 ·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정기 이사회
경 기	-	· 청내근무
강 원	11:00	· LS전선 공장증설 투자 현장방문
충 북	09:30 13:30	· 당산병커 미술관 개관식 · 청주시 순방
충 남	-	· 청내근무
전 북	14:00	· 서해안철도 건설 국회 정책포럼
전 남	14:00	· 서해안철도 건설 국회 정책포럼
경 북	14:50	· 헌법개정 대구경북결의대회 및 헌법개정 토론
경 남	11:00	· 제80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
제 주	-	· 청내근무